

北韓社會理念속의 傳統的 要素*

— 金日成著作集을 中心으로 —

崔 載 賢

- | | |
|----------------------|--------------------|
| I. 傳統속의 國家와 社會理念 | V. 傳統的 思想體系와 宗教에 對 |
| II. 研究方法과 그 限界 | 한 評價 |
| III. 政治的 리더십의 傳統的 要素 | VI. 맺 는 말 |
| IV. 日常生活의 傳統性 | |

I. 傳統속의 國家와 社會理念

國家를 중심으로 組織化된 歷史가 오랜 우리나라에서 王朝時代의 身分 國家(Ständestaat)가 보여 준 特性은 現代產業技術을 토대로 한 國家體制에서도 상당부분 承繼되고 있다.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은 채로, 여전히 中央集權력이 강한 韓半島의 南과 北에서 王朝時代에 보였던 權威主義的 統治方式, 官僚制의 硬直性, 官尊民卑觀念 등이 어느정도까지는 그대로 殘存해 있다. 그래서 國家는 政治領域에서의 統制 뿐만 아니라 市民의 日常生活領域에 대한 干涉에 있어서도 그 傳統性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 本 研究은 1987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다. 이러한 곳에서 인간의 政治, 經濟, 文化生活을 이끌어 가는 志向手段 (Orientierungsmittel)으로서의 社會理念은 國家의 統治理念 그 자체이기 쉽다.

生産力發達에 土臺한 밑으로부터의 社會主義革命을 통하지 않고, 政治·軍事의 次元에서 外部로부터 移植된 革命을 겪은 北韓社會에서 國家의 힘이 強力하고, 國家의 統治理念이 곧 人民의 日常生活을 이끌어 가는 手段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內在的 發展의 論理가 다져진 結果로서가 아니라 外部의 武力介入의 結果로서 일어난 社會主義的 轉換이었기 때문에 北韓에서는 傳統的 要素가 오히려 더 진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北韓社會를 이끌어 가고 있는 社會主義理念은 결코 王朝時代의 產物이 아니라 발달한 科學技術에 토대한 外來의 理念이었다. 따라서 外來理念으로서의 社會主義와 傳統理念으로서의 儒敎的 家父長制 및 身分 國家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矛盾하고 또 融和될 수 있을지는 썩 흥미로운 研究主題다. 두가지 理念의 調和 또는 相互矛盾이야말로 北韓에 독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生活文化를 낳았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北韓住民의 政治生活을 貫流하는 획일적 통제의 고삐와 日常生活의 次元에서의 그 相對的 弛緩 역시 이러한 두 理念間의 葛藤 내지는 妥協의 所産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體制의 全面的 社會主義라는 큰 變動을 겪어 온 北韓에서 社會理念안에 傳統的 要素가 얼마나 강하게 뿌리박고 있으며, 또 傳統의 어떤 要素가 拒否되고 있는지를 究明해 보려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北韓社會理念의 公式화된 版本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저작집」 전 30권 가운데서 主題와 관련되는 內容을 抽出하여 分析해 보기로 한다.

II. 研究方法과 그 限界

여기서 채택하는 方法은 조선노동당의 公式文件인 「김일성저작집」의 內容分析이다. 北韓社會의 實像에 대한 經驗的 研究에 着手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일단 「저작집」의 內容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內容分析의 作業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作業에서 얻어진 情報를 어느 정도 信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심스러운 解釋節次가 필요하다. 黨의 對內外宣傳資料인 「김일성저작집」의 內容을 頡面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에서 발행되는 公式文件들이 그러하듯 「김일성저작집」역시 金日成體制의 業績을 誇張하고 美化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다. 반면에 완곡한 敎示의 形態로나마 北韓社會에서 무언가 잘 機能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글들도 이 著作集에는 많이 실려 있다.

越南歸順者의 批判的 體驗談이 傍證資料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對北關係情報를 독점하는 特殊搜查機關의 資料는 接近도 쉽지 않고, 그 內容도 다소 歪曲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生命을 걸고 歸順한 사람의 心理가 얼마든지 情報를 과장, 또는 歪曲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이나 유럽의 研究者, 言論인들이 現地體驗에 입각해서 쓴 記事, 報告書, 紀行文 등도 北韓社會의 모습을 알게 해 주는 간접적인 傍證資料가 될 수 있다. 筆者로서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접한 그러한 文件들이 이 글을 쓰는 데 迂廻의인 도움을 주었음을 밝히고 싶다. 그러나 이 研究는 「김일성저작집」의 內容分析을 그 本體로 삼고 있으며, 몇가지 관련문헌들을 부수적으로 참조했을 뿐이다.

이러한 研究方法은 現代社會科學이 강조하는 實證精神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리 妙方이 없이 一次資料인 이 「저작집」의 內容 자체를 충실히 分析하고자 할 따름이다.

Ⅲ. 政治的 리더쉽의 傳統的 要素

1. 最高指導者에 대한 敬畏와 無條件忠誠

北韓에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을 보면 특이한 면이 한가지 발견된다. 最高指導者인 金日成에 대한 최고의 敬稱과 고딕活字 사용이다. 예컨대 사진화보설명을 담은 아트지 紙面에서 金日成 석자는 반드시 고딕활자로 표기한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당의 공식문헌에서는 몇줄에 한번씩 “경애하는 수령”云云하는 기사가 삽입된다. 심지어 순수학술논문에서까지도 「金日成著作집」이 의례적으로 引用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이러한 表記慣行은 王朝時代에 王이나 中國皇帝의 實名을 피하던 습관, 王이나 王命과 관계되는 記事가 나올 때 반드시 上段一字를 떼어 쓰던 知識人들의 습관을 연상시킨다. 수령은 보통의 인간이 아닌, 과거의 王에 준하는 別種의 人間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독특한 表記方式을 낳았다고 본다. 이러한 表記方式은 특히 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고지도자인 金日成에 대한 忠誠은 父子나 兄弟間의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金철희의 「주체의 인간상」이라는 책에서는 이 義理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의리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리도 있고, 형제 사이, 부부 사이의 의리도 있으며, 친구들 사이의 의리도 있다. 이러한 의리 가운데서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 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이며, 특히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이다. 그것은 그 의리가 가장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¹⁾

수령에 대한 이러한 義理는 王朝時代君臣間의 義理와 비교될 만한 것이

1) 金철희, 「주체의 인생관」, 사회과학 출판사, 1984, p. 22f

다. 王朝時代에 王이 世界觀의 中心이었듯이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世界觀의 核心으로서 존경받고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닌 세계관의 높이는 무엇보다 그의 철저한 수령관에 있다. 그것은 수령관이 세계관의 핵이며 수령관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도대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어떤 혁명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²⁾

수령을 世界觀의 중심에 놓고 본다는 이러한 발상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그 아들 金正日을 부각시키는 데서 더욱 尖銳化된다.

“수령의 후계자 문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전도, 그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국제혁명운동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령의 후계자가 지녀야 할 징표로부터 후계자의 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십시오. 수령의 영도의 계승성에 관한 이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하십시오.”³⁾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父子間 지도권의 계승에서는 王朝時代의 家父長權繼承 내지는 王位繼承과 비슷한 權威移讓의 시나리오를 발견하게 된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추종과 숭배, 그 家系の 神聖化 등은 현대사회주의의 合理性과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통적 요소를 다분히 함축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2. 中央集權制의 確立

經濟의 合理的 計劃化를 위한 國家權力의 集中化는 현대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北韓은 건국초기부터 중앙집권적 통일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사회주의경제위에서의 민주주의와 연결시킨다는 선전

2) 강능수, “자주적 인간의 전형창조는 우리시대 문학예술의 중요과업,” 「근로자」, 1987. 1. pp. 75~76.

3) 김철희, 위의 책, pp. 218~219.

을 펴 왔다. 1945년 10월 3일에 金日成이 행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강의에서는 이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중앙집권제란 생각할 수 없으며 반대로 중앙집권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주주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은 중앙집권적 통일성에 의해서만 확고히 보장됩니다.”⁴⁾

오늘날까지도 관철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제에는 東區圈 社會主義國家들이나 中國에서 보이는 傳統 외에도 하나의 君主아래 통일된 王朝의 支配秩序가 오랜 傳統으로서 포괄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中央集權制에 알맞는 생활방식으로 北韓에서는 集團主義를 강조하고 있다.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고, 대중의 統制를 잘 받으며, 사회공동생활의 규범을 지키는 集團主義의 人間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⁵⁾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人間型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인간관이야말로 主體의 人生觀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형태의 集團主義의 人間觀 내지 人生觀에는 氏族共同體 또는 部落共同體의 흔적이 보인다. 사실 北韓社會 전체가 하나의 社會主義의 民族共同體요 地域共同體라고 볼 때 이러한 集團主義는 오히려 당연한 社會理念인지도 모른다. 西區의 人間型으로서의 個人은 이 사회이념에서 일단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⁷⁾

3. 官僚主義

중앙집권적 통일성은 官僚主義와 形式主義라는 폐단을 낳게 마련이다.

- 4) 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평양로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 「김일성저작집 1」(1979), p. 293.
- 5) 김일성, “교육사업에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1971. 12. 27), 「김일성저작집 6」(1974), p. 216.
- 6) 김철희, 「주체의 인생관」, p. 158.
- 7) 실존주의적 개인에 대한 김철희의 비판을 보라. 김철희, 위의 책, 참조.

실제로 北韓政權은 그 수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김일성저작집」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郡人民委員長이나 保安機關 幹部들이 그들의 職權을 남용하여 人民과 違和感을 자아내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모양이다. 1948년 11월 20일자 김일성 연설은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안기관에는 일본제국주의의 경찰만능주의사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불법 검속과 고문을 감행하여 함부로 인민의 집과 재산을 몰수하여 처분하는 분자들이 있었으며, 민주주의 국가기관에서 가장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인권옹호에 관한 법령과 검찰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하려는 옳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⁸⁾

국가권력을 빙자한 관료들의 恣意와 橫暴는 植民地時代의 遺習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王朝時代 이래의 傳統인 것이다. 이 점에서는 北韓이나 南韓이나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여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관료들의 횡포와 세도에 대해서 김일성은 4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을 퍼붓고 있다. 이러한 非難이야말로 북한관료제에 도사리고 있는 權力濫用과 形式主義的 作弊가 결코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國家權力이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곳에서 관료주의의 병폐는 어찌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必要惡일지도 모른다. 金日成 자신의 몇가지 비판을 引用해 본다.

“그러면 오늘 일부 일꾼들에게 남아 있는 작풍상의 주요한 결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이것은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절대 다수의 인민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 통치방법입니다.”⁹⁾

8) 김일성, “검찰, 보안기관 일꾼들의 당면업무,” (1946. 11. 20), 「김일성저작집 2」(1979), p. 536.

9)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한 데 대하여,” (1955. 4. 1), 「김일성저작집 9」(1980), p. 269.

“상, 부장, 국장들이 기업소에 내려가서는 대접을 잘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도 기업소일꾼들을 성에 불러올려다가는 며칠이 지나도록 만나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여관도 알선해 주지 않아 성사무실 책상위에서 자다가 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이처럼 대하는 일꾼들에게 동지에는 커녕 인간성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¹⁰⁾

“리당비서를 비롯한 리간부들 가운데는 세도를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리간부들이 국가규율을 잘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것도 주로는 그들이 세도를 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리당비서는 당세도를 쓰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장>자 세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리간부들은 농촌상점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장원들보다 먼저 산다고 합니다.”¹¹⁾

“리당비서들은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욕설하지 말아야 합니다.”¹²⁾

관료주의의 폐해는 인민과 당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자체를 낭비함으로써 사회주의공동체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리당비서들은 협동농장의 돈을 꺾어거나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사취하지 말아야 합니다.”¹³⁾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가 관료들의 부당한 업무집행자세 때문에 誤用되고 결국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김일성의 지적은 국가가 주체가 된 복지제도의 약점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내가 언제인가 태성저수지에 나간 일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낚시꾼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 보니 다 사회보장을

10) 김일성, “국가경제 기관들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일꾼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자,” (1965.1.3), 「김일성저작집 19」(1982), p.15.

11) 김일성, “리당비서들의 임무에 대하여,” (1974.1.14), 「김일성저작집 7」(1978), p.31.

12) 같은 책, 같은 글, p.37.

13) 같은 글, p.36.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어느 해 이른 봄에 량강도에 갔을 때 보니 사회 보장을 받는다는 사람이 찬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노동능력 감정서를 망탕 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¹⁴⁾

국가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고 도입된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폐단은 북한과 같은 권력구조하에서는 뿌리뽑기 어려운 것일른 지도 모른다.

Ⅳ. 日常生活의 傳統性

日常生活의 傳統性은 外面에 나타난 生活慣習의 傳統性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價値觀의 傳統性으로 분리시켜 고찰할 수 있다. 平等化되고 工業化된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하려는 北韓은 初期부터 낡은 생활습관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과 40여년 사이에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이 향상되고 生活樣式이 크게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관습에는 傳統的인 면이 보인다. 「김일성저작집」은 전통적인 생활관습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비판하는 論法을 구사하고 있다. 전통적 생활관습의 단점을 비판한 데서 우리는 북한주민이 청산해야 할 전통을 미처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看破한다. 그런 한에서 북한주민의 生活慣習에는 傳統的 要素가 뿌리박고 있다 할 것이다.

1. 家族主義

이미 50년대에 金日成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家族主義의 現象이 있음을 비판하고 있었다. 특히 작가, 예술인 등 지식인 사이에서 個人利己主義的, 功名主義的 行勳과 더불어 家族主義가 판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¹⁵⁾

14)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41.4.19~23), 「김일성저작집 26」, p. 285.

15)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하여,” (1958.10.14), 「김일성저작집 12」(1981), pp. 551~9.

또한 친척관계나 친우관계를 근거로 당간부들 평가하는 풍조가 있음을 비판하곤 하였다.¹⁶⁾ 또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만 사랑하고 남의 아이는 사랑하지 않는다” 현상도 사회주의적 공동체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¹⁷⁾

이렇듯 북한사회의 구석구석에 家族主義의 傳統이 뿌리깊게 새겨져 있어서, 당과 국가기구가 통제하는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주의의 전통은 婚喪祭를 비롯한 家庭儀禮에 있어서 浪費를 招來하기도 하는데, 金日成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잔치를 크게 차려 낭비하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향불을 피우는 것 같은 것은 다 높은 사회의 생활양식입니다.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허례허식과 넓은 관습은 필요 없습니다.”¹⁸⁾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이 갖는 의미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는 않다. 가정을 잘 꾸려 나가야 혁명도 잘 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儒教倫理를 연상케 하는 바도 있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인간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생활의 요구에 맞게 가정을 꾸려야 하며 가족들의 화목을 이룩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하는 사람은 가정을 혁명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¹⁹⁾

16)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56. 12. 17), 「김일성저작집 10」(1980), p. 423.

17) 김일성, “자녀교양에서의 어머니들의 임무,” (1961. 11. 16), p. 101.

18)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 p. 217. 최근에 나온 「조선전사」에서는 <칠보단장>과 <면사포>를 없애고 신랑은 단정한 양복차림, 신부는 조선옷차림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회음식 낭비를 없애고, 제례를 없애며 무덤에 화환을 놓는 것으로 제례를 대신한다. 상제의 배우도 제거한다. 北韓版 家族儀禮準則이라 할 수 있다. 「조선전사 31」(1982), p. 419.

19) 김철희, 위의 책, p. 137.

가족주의는 敬老思想과도 연결되는데, 다음과 같은 記述에서 우리는 북한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敬老思想의 片鱗을 발견할 수가 있다.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이 오래간만에 딸네 집에 가느라고 어쩌다 한번씩 버스를 타겠는데 버스안이 너질하고 추워서 할머니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걸모양이 곱고 안이 깨끗한 좋은 버스들을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여행하는 농촌주민들이 조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⁰⁾

농촌주민의 여행편의시설을 강조하면서 “딸네 집에 가는 할머니들”을 예로 들고 있음은 인상적이다. 이러한 記述에서는 북한주민의 日常生活을 꿰뚫고 있는 家族主義的 觀念이 내포하는 情感의 強度를 느끼게 된다. 家族主義에 관해서 北韓當局은 그 長點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려는, 비교적 균형잡힌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전통적인 가족관념의 뿌리는 깊은 것이다.

2. 건전한 生活文化育成

家父長의 專制라는 것은 揮下에 들어간 人員의 日常生活에 대한 간섭과 통제임과 동시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잘못된 행동거지를 바로잡아 주는 施惠者요 教師로서의 任務를 의미한다. 生活文化에 관한 金日成의 敎示는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家父長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家와 黨이라는 公式機構의 最高意思決定權者로서 수행해야 할 公式的 機能을 훨씬 뛰어넘어 金日成은 주민의 옷차림, 목욕의 頻度, 술마시고 담배피우는 일일까지 깊숙히 개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引用文을 보자.

“생활문화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평양시민들이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지 않는 데 이런 현상과도 투쟁하여야 합니다.”²¹⁾

20) 김일성, “농업근로자 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1972.2.16), 「김일성저작집 27」(1984), p.82.

21)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기 제 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1.4.19~23), 「김일성저작집 26」, p.172.

“목욕탕을 잘 운영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며칠전에 어느 한 협동농장에 나가보니 목욕탕은 크게 지어 놓았지만 겨울 동안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초보적인 문제인데 일꾼들의 사상관점이 바로 서지 못한 데로부터 목욕하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마거리에 살림집들은 잘 지으면서 목욕탕을 되는 대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일꾼 자체가 목욕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상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²²⁾

목욕을 게을리하고 목욕탕을 형식적으로만 지어놓고 실제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원래 목욕을 등한시한 민족전통과 사회주의적 관료제의 형식주의가 한데 얽힌 폐해라 하겠다. 浮華放蕩한 생활에 대한 金日成의 비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습관에 전통의 요소가 꽤 강함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화방탕하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낡은 사회의 잔재입니다. 술마시고 투전하는 것, 남녀 사이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즐겁게 논다는 것은 결코 부화하고 타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²³⁾

청소년의 行動規範에 대한 公式的 規定도 꽤 전통적인 影像을 비추고 있다.

“사로청원들을 잘 교양하려면 사로청일꾼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꾼들은 담배도 피우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며 웃도 늘 단정히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사로청원들이 그 본을 딸 수 있으며 소년단원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²⁴⁾

品行方正하고 服裝端正함으로써 “이신작칙(以身作則)”해야 한다는 社勞靑員들의 행동규범은 韓國에서 靑少年들의 품행과 관련되어 통용되는 規

22) 김일성, 위의 글, p. 187.

23)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p. 103.

24) 김일성, “새로 배치된 사로청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도사로청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72. 12. 16), 「김일성저작집 27」(1984), p. 544.

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두 경우에 모두 儒敎의 規律과 禮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하겠다. “以身作則”이라는 表現 자체가 또한 多분히 儒學者의인 表現이 아닐 수 없다.

勤勞의 에토스에 있어서도 北韓社會 어느 구성원가는 儒敎의 觀念의 殘滓로서의 勞動賤視風潮가 보인다. 다음과 같은 지적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 남의 머슴 노릇을 하던 사람들, 오랜 노동자들 속에는 놀고 먹으려는 버릇이 없읍니다. 지주나 자본가, 장사하던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지난날 놀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놀고 먹었으면 합니다.”²⁵⁾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잘 교양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아버지, 오늘은 왜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며…… 이렇게 되면 노동을 싫어하고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지 않던 사람들도 아이들의 이러한 말에 가책을 받아 점차적으로 자기 결함을 고칠 수 있습니다.”²⁶⁾

노동을 賤視하는 既成世代之 價値觀을 바꾸기 위하여 오히려 젊은 世代에 대한 敎育이 하나의 手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 知識人重視傾向

儒敎社會의 傳統이 끼친 영향은 예컨대 知識人을 重視하는 풍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사회에서 知識人이 他集團에 대해 갖는 相對的 優越感은 公式的 理念에서는 비판·부정되고 있지만, 現實에서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음을 본다.

“어떤 동무들은 남의 이력서를 보고 대학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상당한데> 하고 소학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 문화수준이 대단히 낮구만>, 이렇게 속단합니다.”²⁷⁾

25)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1961.11.16), p.99.

26)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 (1971.2.3), 「김일성저작집 26」(1984), p.53.

“또 한가지 해로운 경향은 일부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무식하다고 업수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박사, 학사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²⁷⁾

사회주의사회에서 인테리는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않는다. 인테리는 서로 다른 계급의 출신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층일 뿐이다.²⁸⁾ 그러면서도 인테리는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위신을 적지아니 누리고 있다. 김일성은 인테리들이 갖는 우월감을 비판하면서 인테리들의 소심함과 保身主義的 傾向 및 事大主義根性を 지적한 적도 있다.³⁰⁾

그러면서도 北韓當局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인테리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이른바 “인테리혁명”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³¹⁾ 공부와 교육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의 저작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간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하면 진달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안다고 하여 공부도 하지 않고 진달을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³²⁾

“그런데 요즘 일부 청년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청년학생들이 책을 잘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책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도 일정하게 관련 되겠지만 주요하게는 청년학생들이 책을 읽기 좋아하는 버릇을 붙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³³⁾

27)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저작집 22」(1981), p. 601.

28)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1968.9.16), 「김일성저작집 12」(1981), p. 523.

29) 김일성, “우리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데 대하여,”(1968.6.14), 「김일성저작집 22」(1983), p. 359.

30) 김일성, 위의 글, p. 357.

31) 김재성,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인테리의 역할,” 「근로자」(1986.5), p. 61.

32)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1965.2.23), 「김일성저작집 19」(1982), pp. 219~220.

33)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료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1971.2.3), 「김일성저작집 26」(1984), p. 38.

독서와 교육에 대한 강조는 교원처우개선과 직결된다. 김일성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도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원들이 교육사업에 안착되어 청소년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하고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길러내는 데 모든 정력과 재능을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동무가 토론한 바와 같이 교원들을 돌봐 주지 않고 부러만 먹으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³⁴⁾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氣風은 80년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儒敎文化의 傳統이 사회주의사회의 編成原理와 잘 融合되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사실 교원에 대하여 사회성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 정신도덕적 풍조와 문화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 된다. 정의감이 강하고 문화와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교원,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훌륭한 미덕으로 여겨 왔으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양하여 왔다.”³⁵⁾

4. 女性像・女性の 社會的 役割

女性에 대한 사회적 차별관념은 북한에도 존재하며, 그것은 傳統的 女性觀과 한 脈絡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일부지도일군들 가운데는 여성간부들을 깎보거나 차별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낡은 봉건사상잔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을 차별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³⁶⁾

“어떤 사람들은 안해가 아들을 못낳는다고 해서 리혼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무슨 큰 문제로 될 수 있었습니까?”³⁷⁾

34) 김일성, “평안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1956. 4. 7), 「김일성저작집 10」(1980), p. 167.

35) 변영립,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자,” 「근로자」(1987. 5), p. 69.

36)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 데 대하여,” (1971. 2. 3), 「김일성저작집 26」(1984), p. 27.

여성간부에 대한 卑下나 아들 못낳는 부인에 대한 이혼위협은 모두 다 전통적인 여성상에 뿌리를 둔 弊風이라 할 수 있다. 노동력이 부족한 北韓社會에서 女性의 직업활동이 淸苦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보는 눈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가정교육과 가정의 주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여성의 역할로 남아 있다.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전통적 女性觀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지금 불량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가정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안전성에서 불량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料理하여 본 데 의하면 대체로 어머니가 혁명화되지 못한 집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봉건사상을 가지고 있는 계모들이 아이들을 차별하고 구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나가서 떠돌아 다니다가 나중에는 불량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³⁷⁾

“한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은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장판도 도배도 깨끗하게 하여 놓았고 옷걸개에는 아이들의 옷도 몇 벌씩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네 명이나 되는데 다 깨끗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이와는 달리 집이 매우 어지럽고 아이들도 형편없이 거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었으며 장판도 안하고 도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어지럽기 짝이 없고 아이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부인은 일하러 나가지 않고 남편만 버는데 수입은 첫번째 집보다 몹이나 더 많았습니다.”³⁸⁾

비뚤어진 자녀에 대한 교육책임, 집안환경가꾸기 등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돌리는 이러한 發想에는 다분히 傳統的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女性들 자신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기보다는 집안에 安住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金日成은 지적한다. 예컨대 “대학을 나오고도 일은

37)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1961.11.16), p.101.

38) 김일성, “여성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때 대하여,” (1971.10.7), 「김일성저작집 6」, p.115.

39)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p.110.

안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女性들이 천수백명이나 있습니다.⁴⁰⁾ 하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 表現은 집에서 家事勞動에 종사하는 女性들을 “놀고 있는 女性들”이라고 함으로써 家事勞動을 輕視하는 傳統的 思考를 金日成 자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女性을 職장의 노동력으로 動員하려 하면서도 家事勞動에의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들을 二重으로 묶는 정책을 北韓당국은 구사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女性을 解放시킨다는 社會주의의 이념과 男女間의 엄밀한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傳統이 서로 調和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V. 傳統的 思想體系와 宗教에 대한 評價

1. 民族文化遺產의 繼承과 批判

金日成이 ‘主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에 한 연설에서였다 한다.⁴¹⁾ 主體思想은 外勢의 간섭과 침입이라는 危機狀況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原理에다 民族的 傳統을 加味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北韓공산주의체제의 社會的 根幹인 主體思想은 民族的 傳統, 民族文化遺產을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민족문화유산 계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는 결코 빈터위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社會주의적 민족문화는 지난날의 문화 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여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초위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⁴²⁾

40) 김일성, 위의 글, p.116.

41)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1955.12.28) ; 國土統一院, 「北韓靑少年의 社會化過程 研究」(국통조 78-11-1449), p.27 참조.

42)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0.2.17),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p.6.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이라는 발상은 일찍부터 보인다. 1946 년에 한 연설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 문화인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서 우수한 것은 계승하고 탁후한 것은 극복하며 선진국가들의 문화 가운데서 조선사람의 비위에 맞는 진보적인 것들을 섭취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문화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⁴³⁾

金日成은 朝鮮書, 佛像彫刻, 금강산에 대한 傳說, 사당춤 등을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다.⁴⁴⁾ 또 예컨대 보현사 대웅전, 8각 13층탑, 8만대장경, 목판활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일깨우고 있다.⁴⁵⁾ 東醫學에 현대적 진찰법을 配合할 것도 지시하고 있다.⁴⁶⁾ 朝鮮歷史, 古典文學, 古典藝術, 朝鮮語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의 著作集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족적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갖춘 文化를 北韓은 志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2. 儒學思想批判

70 년대에 北韓에서 나온 「조선철학사상사연구(고대~근세)」에서는 朝鮮時代의 儒學思想의 여러 類派가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理一元論을 대변하는 哲學者들은 가차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理

43)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건설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5.24), 「김일성저작집 2」, p.235.

44) 김일성,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0.2.17), p.3.

45)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1949.10.15), 「김일성저작집 5」(1980), pp.281~286.

46) 김일성,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1973.1.31), 「김일성저작집 28」(1984), pp.110~111.

47) 현종호,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리론,” 「근로자」 (1987.3), p.90.

의 一次性과 理에 의한 세계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사소한 진보적 철학 사상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李退溪는 이런 의미에서 “觀念論의 反動的 本質”을 具現한 사상가로 酷評받는다. 그에 반해 李珥는 理氣二元論에 기초한 客觀觀念論을 주장함으로써 辨證法的 思想要素를 담은 학자라는 것이다.⁴⁸⁾ 氣一元論을 주장했거나 또는 物質과 意識의 關係를 둘러싸고 唯物論的 立場을 견지한 바 있는 張維, 尹鏞, 朴世堂, 任聖周 등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⁹⁾ 金時習, 徐敬德 등은 15~6 세기의 唯物論哲學者로 규정되고 있고, 그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에 반해 17 세기의 宋時烈은 觀念論者로서 反動的 本質을 드러낸 思想家로 비판받는다. 朝鮮朝後半期 <禮論>을 둘러싼 스콜라적 논쟁은 儒學의 反動的 本質을 드러낸 것으로서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李睟光, 李瀾, 洪大容, 朴趾源, 丁若鏞, 李圭景, 崔漢綺 등 實學思想家들은 唯物論, 無神論, 辨證法的 思考, 封建的 秩序의 拒否 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 세기의 斥邪衛正論者인 李恒老, 崔益鉉, 柳麟錫 등은 기본적으로 觀念論者들이었다는 점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義兵運動에 영향을 줌으로써 “人民들의 反日鬪爭에 일정한 긍정적 영향”⁵⁰⁾을 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金玉均의 開化思想은 부르조아 啓蒙思想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朴殷植, 申采浩 등의 사상 역시 觀念論에 입각한 부르조아思想으로 分類되고 있다. 이들을 源流로 삼는 愛國文化運動은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 것으로서”⁵¹⁾ 이해되고 있다. 1910 년대부터는 노동운동과 先進的인 勞動階級思想이 발생·발전함으로써 愛國文化運動은 終末을 고했다는 것이다.

48) 「조선철학사상연구(고대~근세)」, pp. 135~141.

49) 같은 책, pp. 189~208.

50) 위의 책, pp. 267~268.

51) 위의 책, p. 304.

東學을 創始한 崔濟愚의 사상은 凡神論의 要素를 갖고 平等思想을 내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 후계자들이 이 思想을 宗教의 테두리 안에 묶어 넣음으로써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의 반봉건 반침략투쟁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⁵²⁾는 것이다. 全瑛準의 反侵略, 反封建思想은 일단 肯定的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 “和議”, “승인” 등의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결국은 농민전쟁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한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⁵³⁾

朝鮮時代의 思想潮流에 대한 北韓의 해석은 圖式的으로 보인다. 有神論—無神論, 觀念論—唯物論, 理論—氣論, 부르조아적 성향—노동계급적 성향과 같은 二分法的 分類과 평가가 이 해석의 骨格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종래 哲學史에서 비교적 등한시되었던 진보적 취향을 가진 일단의 사상가들을 前面에 내세운 것은 發展的인 試圖라 할 수 있다.

3. 宗教批判

唯物論과 無神論을 바탕으로 삼는 北韓의 社會理念에서 宗教는 애당초부터 부정되게 마련이다. 宗教의 이데올로기성 뿐만 아니라 宗教의 긍정적 가치라고 믿어져 온 禁慾主義까지도 다음과 같이 부정되고 있다.

“종교적 금욕주의는 행복에 대한 사람의 열망과 양립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적 금욕주의가 사람들이 지상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단념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⁵⁴⁾

이렇듯 北韓에서 통용되는 社會理念은 來世的인 것을 부정하고 地上生活의 기쁨과 幸福을 추구하는 것이다. 佛敎가 주장하는 虛無主義, 禁慾主義, 無抵抗主義 등은 自主性を 위한 人民大衆의 투쟁을 저해하고 봉건통

52) 같은 책, p. 274.

53) 같은 책, pp. 279~282.

54) 김철희, 위의 책, p. 130.

치를 美化紛飾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비판받는다. 또한 기독교는 실제적인 平等이 아니라 神앞에서의 공허한 平等을 들고 나옴으로써 사실상 사회적 不平等을 더욱 강화하고 신성화하였다는 것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북한공산주의 사회이념이 추구하는 地上에서의 행복은 불교나 기독교의 전통보다는 進步的인 儒學思想에 그 脈을 대고 있다 하겠다. 儒敎의 現世的 合理性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회통제기술이 융합된 것이 북한의 社會理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Ⅵ. 맺는 말

「김일성저작집」은 그에 실린 수많은 연설문의 敎示的·敎訓的 性格 자체가 다분히 傳統的이다. 黨管僚들이 人民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부터 청소년들이 술·담배 먹지 말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敎育的 當爲의 設定에 이르기까지 金日成의 語錄은 家父長的 干涉과 統制, 그리고 때로는 保護와 恩寵의 맛을 풍긴다. 이 著作集에 실린 방대한 文件들이야말로 北韓社會主義體制가 成就해 낸 業績과 아울러 社會矛盾을 反映해 주는 것이다. 公式文件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특정개인의 人格的인 特徵과 感化力이 돋보이도록 쓰여졌다. 그만큼 北韓의 社會주의 體제는 현재 대부분의 社會주의국가들이 도달한 管僚制的 合理性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體制自體가 指導者個人的 人間的 能力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形局이다. 이러한 體制는 現代科學技術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카리스마적 지배이며, 그런 한에 있어서 北韓의 支配構造에는 傳統的인 要素가 보이는 것이다.

金日成의 카리스마를 中心으로 뭉친 黨은 國家權力的 核心을 장악하고 있고, 國家機構는 人民生活의 구석구석에까지 統制의 손을 뻗치고 있다.

55) 같은 책, pp. 130, 147.

이러한 곳에서 社會는 다만 國家의 下位概念일 뿐이며, 社會理念 역시 支配集團의 統治理念일 뿐이다. 이 統治理念은 歷史속에 쌓여 온 人民의 生活慣習을 全面的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하여 현대사회주의이념으로 轉換하고 있다. 傳統의 批判的 繼承이야말로 北韓社會主義理念의 뚜렷한 한 흐름이며, 그러한 努力이 主體思想을 定立해 가기 위한 밑바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政治的 리더쉽에 있어서는 人格的인 存在로서의 首領이 王朝時代의 王에 代入되는 修辭法에서 보듯 傳統性이 매우 강하다. 首領의 地位가 그 아들에게 이어지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 계획이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美化되고 있다는 데서 이 傳統性은 그 性格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지배체제에서 人民은 權力의 創出者가 아니라 그것에 봉사하는 下部勞動力일 뿐이며, 봉사와 충성을 댓가로 주어지는 최소한의 生活保障을 惠澤으로 느끼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人民은 權力創出者로서의 진정한 人民이 아니라 既存의 權力을 容納하고 그에 봉사할 수 밖에 없는 臣民에 가까운 存在라 할 것이다.

生活慣習에 있어서도 傳統性은 상당한 정도까지 관철되고 있다. 世代間의 日常儀禮, 男女間의 性的·社會的 分業, 國家管僚와 일반인민 간의 權威配分樣式 등에 있어서 北韓社會는 아직도 진정한 平等社會를 具現하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와 人民이 서로 別個의 카테고리로서 分立되어 있고, 兩者間에 넘어갈 수 없는 權威의 斷層이 있듯이 世代間, 男女間, 管僚와 勞動者間에도 權威의 不平等配分現象이 뚜렷하다. 이러한 現象은 北韓社會가 밑으로부터의 革命을 겪지 않았던 데 基因하는 것이다.

日常의 消費生活과 家族行事に 있어서도 傳統的 要素가 많이 살아남아 있다. 이 傳統的 要素에는 낭비와 不合理도 많은데,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김일성전집」에서는 傳統的 生活樣式的 그런 部分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려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民의 生活文化가 오랜 전통 속에 뿌리박고 있으며, 社會主義生活文化라는 것이 크게 다른,

더 좋은 代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傳統的인 生活文化의 偉力은 대단한 것이다.

전통적 思想體系와 宗教에 대한 解釋은 人民이 日常生活 속에서 해낼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學問的 作業에 맞기게 될 일이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두 권의 책 「주체의 인간상」과 「조선철학사상사」는 그러한 學問的 作業의 결실로서 비교적 충실한 內容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儒學의 여러 흐름에 대한 比較檢討에서는 傳統的 批判的 繼承이라는 主體 思想의 觀點이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 사실상 朝鮮時代 儒學의 여러 類派에 대한 이 책의 해석은 北韓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해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唯物論과 辨證法, 그리고 無神論을 잇는 단 하나의 分析의 軸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을 뿐이다.

기독교와 불교에 대한 全面的 批判은 北韓體制에만 독특한 것이다. 儒敎의 家庭儀禮는 상당부분 承繼되고 있다. 北韓住民의 衣·食·住生活과 餘暇生活은 어떤 의미에서는 南韓住民의 그것보다도 더 傳統的이라 할 수 있다. 西歐文化에 대한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國家는 강력한 統制의 메카니즘을 갖고 日常的 家庭儀禮의 領域에 까지 깊숙히 간섭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에 對立되는 概念으로서의 市民社會가 存立할 수 있는 基盤은 대단히 약해 보인다.

北韓의 社會理念은 공업화된 사회주의체제에다 傳統的인 支配構造를 接合하는 線에서 形成되었다. 住民의 生活은 근대적인 것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지만 그 基底에 있는 殘基(residue)는 여전히 傳統的 領域을 固守하고 있다. 이 점은 장래 南北韓의 同質性 회복과 統一의 實現을 위해 오히려 다행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轉換을 포함한 일체의 사회변혁이 사실은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過程이며, 그런 까닭에 傳統的 要素가 상당기간 살아남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北韓社會의 社會理念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다시 한번 確認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